政策討議시리즈 28
1986. 3

農水産物流通改善과 都賣市場建設 長期計劃構想

韓國農村經濟研究院

빈 면

머 리 말

이 책자는 지난 3월 20일 當硏究院이 主催한 「農水産物流通改善과 都賣市場建設 長期計劃構想(案) 」에 관한 政策協議會에서 發表된 主題論文과 討議內容을 整理한 것이다.

發表된 主題論文은 農水産部와의 用役契約에 의하여 수행된 「全國圈農水産物流通改善 基本計劃硏究」의 長期流通改善 綜合計劃硏究에 기초하여 作成한 것으로 農水産物流通改善을 위한 최초의 長期綜合計劃(案)이다.

이날 政策協議會에는 學界, 硏究機關, 農業團體 및 政府機關에서 많은 專門家들이 참석하여 當硏究院이 硏究提示한 「農水産物流通改善과 都賣市場建設長期計劃構想」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와 分野別 施策方向에 대한 진지한 論議가 있었다.

討議는 農水産物流通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內容이 다루어졌으며, 특히 農水産物流通 발전의 轉機가 마련될 수 있는 農水産物都賣市場建設에 따르는 문제들이 개진되었다.

當硏究院은 이번 政策協議會에서 발표되고 討議된 사항을 정리 발표함으로써 이 分野에 관여하는 모든 關係機關의 실무에 참고가 되기를 바란다.

1986. 3.

韓國農村經濟硏究院長 金 榮 鎭

빈 면

目　　次

머 리 말

主題發表

農水産物流通改善과 都賣市場建設 長期計劃構想…… 1

討議內容…… 20

附　錄

1. 開 會 辭…… 54

2. 參加者 名單 …… 56

빈 면

主題發表

農水産物流通改善과 都賣市場建設 長期計劃 構想

Ⅰ. 農水産物 流通現況과 展望

1. 農水産物 流通現況과 問題

가. 産地流通

- ○ 商品出荷가 個別的, 分散的, 小規模로 이루어지고 있어 商人에 대한 對應力이 약하고 出荷費用이 높으며 市場出荷調整이 어렵고, 選別包裝 등이 이뤄지지 못하여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 ○ 産地中間商은 대부분 品目別로 專門化되고 地域別로 固定되어 있으며, 資金은 委託商(先渡金)이나 個人(私債)으로부터 調達받고 있어 生産者와의 非競爭的·不公正去來의 要因이 되고 있음.
- ○ 共同出荷組織을 통한 販賣比重이 10% (青果物)에 지나지 않아 商人에 대한 견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
- ○ 菜蔬·양념류는 前年度 價格에 대한 生産反應이 민감하나 生産觀測 등 生産調節機能이 미약하여 需給과 價格이 不安定
- ○ 單位農協의 流通擔當人力과 專門知識의 不足, 對農民流通情報 傳達體系의 未備 등으로 共同出荷組織이 効果的으로 育成되지 못하고 있음.
- ○ 産地의 家畜市場과 屠畜場의 施設 및 取扱規模가 零細

나. 都賣市場

○ 農水産物 價格形成의 中樞的 役割을 담당하고 있는 都賣機能은 靑果와 水産物의 경우 주로 非制度的 類似都賣商人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非競爭的 價格形成, 높은 流通情報 수집비용, 不公正課稅 등의 原因이 되고 있음.

〈 主要都市의 都賣市場分布와 類似市場 去來比重 〉

都 市	靑果			水産 *		
	總都賣市場數	類似都賣市場		總都賣市場數	類似都賣市場	
		市場數	去來比重		市場數	去來比重
서 울	24	15	67 %	12	8	35 %
부 산	33	14	68	-	-	-
대 구	13	7	63	5	3	-
인 천	11	4	44	-	-	-
광 주	7	2	52	5	3	49
대 전	3	1	23	4	2	36
소 계	91	43	63	26	16	32
전 국	186	74	59	43	22	32

* 수산물 양육지 도시제외.

- 生産者 生産規模의 零細性과 週年價格 不安定에 대한 위험 회피로 産地收集商 혹은 委託商과의 去來選好
- 法定都賣會社의 流通金融 등 出荷物量 確保能力 미약

○ 대부분의 都賣市場(類似市場 포함)은 去來物量에 비해 狹小하고 施設이 未備하며 시장확장이 어려운 都心에 위치하고 있어 流通能率의 低下, 都心交通混雜, 환경오염 등 社會的 費用이 높음.

○ 畜産物都賣市場은 屠畜場을 併設하고 있어 枝肉의 地方肉搬入이 制限을 받고 있으므로 生畜輸送에 의한 流通費用過多, 都心환경오염 및 交通混雜을 야기시키고 있음

- 枝肉輸送時 輸送費節減 : 쇠고기 12 %, 돼지고기 50 %

다. 小賣機構

- ㅇ 一般 小賣市場은 小規模 分散的이어서 消費者 需要變化에 대한 適應力이 약함.
  - 全國 1,020 個 小賣市場 중 農水産物 主取扱市場 50.4%
  - 市場面積 1,000 坪 以下 : 67.9 %
  - 市場當 店舖數 : 184 個(33.8 %는 行商 및 座商)
- ㅇ 小賣市場 店舖의 높은 賃貸料와 權利金으로 收益率이 낮고 높은 流通마진의 原因이 되고 있음.
  - 平均 坪當 保證金 655 千원, 月賃 65 千원, 權利金 408 千원
  - 店舖當 從事人力 : 平均 1.9 人, 面積 : 6 坪
- ㅇ 零細한 小賣店을 수평적으로 統合 連鎖化한 連鎖店 本部의 加盟店 商品供給率은 현재 32.8 %이나 점차 減少하는 추세에 있으며 新鮮 農水産物은 거의 取扱하고 있지 않음.
- ㅇ 수퍼마켙에서 農水産物을 取扱하는 店舖는 5.5 %에 불과함.

라. 流通情報體制

- ㅇ 情報收集機關과 方法이 多樣하고 重複되고 있음.
  - 農水産物 價格調査機關 : 農水産部, 農開公, 農・水・畜協, 經濟企劃院, 韓銀 等
  - 標本抽出, 地域, 品質規格, 調査時期가 각기 相異하여 相互比較 困難
- ㅇ 農水産物의 等級, 包裝, 去來單位의 未統一로 情報의 客觀性 維持와 比較가 不可能하여 情報의 效率性 低下
- ㅇ 情報內容의 未洽 : 地域別(産地・消費地) 流通量, 全國 平均價格, 作況 등
- ㅇ 신속 정확한 收集, 分析, 分散을 위한 體系와 機器不足
  - 調査 및 分析要員의 確保, 資料의 電算 Data Base 化, 端末機의 擴大 設置 等이 필요

2. 農水産物 流通展望

○ 所得成長, 人口의 增加와 都市集中, 農家戶數의 減少와 商業的 營農化 等으로 農水産物 流通物量 急增

→ 流通施設과 輸送需要 急增

〈 主要農水産物의 流通量 豫測 〉

品 目	1981	1991	2000	1981/2000 年平均變化率
	·····	(1,000 ㎏)	·····	(%)
靑 果 物	6,862	11,798	15,313	4.3
(果實)	(1,372)	(2,933)	(4,574)	(6.5)
(菜蔬)	(5,490)	(8,865)	(10,739)	(3.6)
肉 類	382	829	1,284	6.6
水 産 物	2,130	3,379	4,670	4.2

○ 食品需要의 高級化, 多樣化, 便宜生活 欲求增大로 配達, 加工, 標準化, 衞生處理 等 質的 流通서비스 需要 增大

- 流通施設의 近代化와 地域的 均衡配置
- 外食産業 및 食品加工産業이 發展

○ 農業生産의 地域的 特化와 專門化

- 流通情報, 金融, 行政 等 流通助成業務의 專門化, 高度化 必要性 增大

Ⅱ. 農水産物 流通改善의 基本方向과 對策

1. 流通改善 基本方向

○ 農水産物의 價格은 需要와 供給에 의해 決定되도록 하고 流通參加者

間 競爭을 促進함으로써 流通組織을 體系化하고 公正去來를 誘導한다.

- 流通參加者의 經營合理化와 規模의 適正化를 圖謀하고 不必要한 流通段階를 縮小시켜 流通費用을 節減시킨다.
- 農水産物의 生産과 出荷調整 및 收買·備蓄事業 等을 通하여 價格을 安定시켜 生産者의 所得과 消費者 家計를 保護함으로써 國民經濟의 安定的 成長에 寄與한다.
- 流通施設을 適切히 配置함으로써 均衡的인 地域發展을 圖謀한다.
- 政府의 投資는 民間部門의 公正한 去來를 達成하기 위한 社會間接資本을 形成하는 데 重點을 둔다.

2. 流通改善 長期對策

가. 産地流通의 效率化

基本目標

産地流通은 農·水·畜協이 主導하여 生産者의 市場交涉力을 向上시키고 産地消費者를 위한 都賣機能을 擔當하며, 肉類는 枝肉流通의 一般化를 圖謀한다.

施策方向

(1) 共同出荷組織의 育成支援

- 單位組合과 連繫된 生産地의 作目班이나 漁村契를 中心으로 共同出荷組織을 擴大 造成하고 單位組合의 機能을 補強하여 出荷物量의 大部分을 擔當토록 한다.
- 共同出荷組織을 育成하기 爲하여 先渡資金, 流通情報, 包裝資材等의 優先支援, 共同 Brand의 設定, 機械式 選果場, 改良곳간

等 施設投資에 對한 長期低利資金을 支援한다.

- ○ 單位組合의 流通機能을 擴大하기 위하여 流通擔當專門人力의 確保와 敎育, 流通情報傳達 機資材의 確保를 支援한다.

(2) 産地家畜市場 및 屠畜場 整備

- ○ 家畜市場의 公正去來施設確保와 收支改善을 爲하여 地域交通手段 發達程度를 考慮하여 2000年까지 50～60個所로 統合
- ○ 効率的인 肉類의 枝肉流通을 爲하여 施設이 老朽한 屠畜場을 段階的으로 閉鎖하고 規模化된 家畜市場에 併設移轉하여 家畜市場의 活性化와 生畜輸送費 節減을 圖謀한다.
- ○ 屠畜場의 運營은 共同出荷의 促進, 公正納稅支援, 都賣市場 枝肉出荷助成·支援 等을 爲하여 畜協에서 擔當

(3) 水産物揚陸地 強制上場制를 段階的으로 廢止하여 共同出荷組織 等에 의한 消費地 都賣市場으로의 直出荷를 圖謀하여 競爭的 流通經路를 誘導하며, 委販場은 揚陸地 消費圈의 都賣機能과 輸出·貯藏·加工用 水産物의 收集 機能을 主로 擔當

나. 都賣市場 施設擴充과 運營正常化

基本目標

都賣市場을 公正하고 中樞的인 農水産物 價格形成機能을 擔當할 수 있도록 育成하여, 靑果物은 消費地 流通量의 80%, 水産物 60%, 肉類 80～85% 以上이 制度的 都賣市場을 經由하도록 誘導한다.

施策方向

(1) 都賣市場의 建設

- ○ 都心地에 狹小하게 位置한 類似都賣市場을 包含한 모든 都賣市場을 長期的인 流通量, 都市計劃과 輸送網 等을 考慮하여 地價가

낮은 外廓地帶에 充分한 坪地를 確保하여 綜合都賣市場을 建設 移轉시킨다.

- ○ 都賣市場은 人口 20萬名 以上 都市를 對象으로 地域流通 및 交通網을 考慮하여 配置 建設하며 所要資金은 中央 및 地方政府의 直接投資에 의함으로써 公營化한다.

(2) 都賣市場運營의 正常化

- ○ 都賣市場의 農水産物 價格形成과 需給調節機能 및 流通情報體系上의 位置를 考慮할 때 都賣市場管理에 對한 政府의 介入을 積極化하고 可能한 限 部類別로 2個 以上의 指定都賣人을 入住시킨다.
- ○ 市場運營의 規模化로부터 얻어질 運營費用의 節減分은 上場手數料 等 諸料率 引下에 反映
- ○ 農·水·畜協의 都賣市場 運營에 對한 發言權을 確保한다.
- ○ 畜産物 都賣市場은 枝肉競賣만을 取扱토록 하고 併設된 屠畜場은 漸進的으로 地方으로 移轉시키며, 輸入包裝肉도 食肉都賣市場에 上場시켜 價格이 競爭的으로 形成되도록 한다.
- ○ 都賣市場에서의 競賣去來制度를 定着시키기 爲하여 指定 都賣人의 機能을 強化
  - 上場物量 確保를 爲한 産地生産者의 直出荷促進 活動 擴大
  - 出荷先渡資金 貸與를 爲한 運營資金 支援 擴大
- ○ 政府의 價格安定事業用 備蓄物量을 都賣市場 上場을 通한 公開市場 操作制度 導入
- ○ 都賣市場關聯 制度 改善
  - 部類別 都賣市場 開設 → 綜合都賣市場 開設 促進
  - 品目別, 地域別로 都賣去來方法에 可變性 認定

다. 小賣市場의 近代化

基本目標

小賣店의 規模化와 施設近代化를 이룩하여 公正去來의 實現과 流通

費用 節減

施策方向

- ○ 小賣機構의 運營은 原則的으로 民間主導下의 競爭市場에 맡김
- ○ 産地와의 直去來를 誘導하고 包裝去來의 擴大, 체인組織을 通한 大都市 小賣 分配網 改善을 爲한 集配센터를 擴大 設置(可能한 限 現 大都市 共販場施設 利用)
- ○ 在來式 小賣市場의 施設近代化와 小賣店의 規模化를 爲한 金融支援과 定札制定着을 爲한 稅制支援 強化

라. 貯藏·加工産業의 育成

基本目標

貯藏·加工産業을 育成·支援하여 農水産物價格을 安定시키고 消費者 嗜好變化를 充足시키며 地域發展을 圖謀

施策方向

(1) 貯藏業의 發展과 政府의 收買·備蓄機能 強化

- ○ 貯藏施設의 地域的 不均衡을 是正하고 老朽施設의 代替와 施設改善을 爲한 民間投資를 支援
- ○ 貯藏中 減量과 品質低下를 防止하기 爲한 技術開發 및 普及을 위한 國家研究機關의 支援
- ○ 貯藏性이 있는 主要農水産品目의 政府收買備蓄을 繼續 擴大하여 市場支配力 維持

(2) 加工産業의 育成과 地方配置

- ○ 食品加工技術의 發展을 爲하여 國家研究機關이 積極 參與하여

技術開發普及 擴大

○ 加工工場을 原料主産團地中心의 農工地區 等에 유치하기 爲하여 原料收買를 擴大 支援하고 旣存의 老朽化된 施設代替나 改善을 위한 所要資金 支援

마. 流通助成機能의 活性化

(1) 流通情報

○ 流通情報 專擔機構 設置

- 流通情報體系의 總括 및 綜合分析 機能 擴大
- 農業觀測 및 流通豫告制 強化
- 流通情報 專門職 養成

○ 都賣市場 및 産地와의 流通情報 連繫網 構築

- 流通物量과 價格情報의 正確度 提高
- 情報의 Data Base化
- 情報의 온-라인化를 爲한 傳達機器 擴充

(2) 標準化·規格化

○ 國定規格을 制定 法制化하여

- 標準去來單位의 弘報活動 強化
- 標準規格 包裝機資材의 生産 및 生産者 普及 支援(包裝材, 選別機, 共同作業場 等)
- 都賣市場의 規格·包裝出荷商品 優待 制度 導入(優先上場, 手數料引下 等)

(3) 流通行政

○ 農水産部의 分散的인 流通關聯部署를 流通局으로 改編, 部類別 流通專擔部署와 總括企劃部署 等으로 設置

○ 地方 市·郡 單位까지도 流通專擔係를 新設하고 專門人力을 補強하여 地域流通機能을 強化

○ 農水産物 流通公社의 機能定立

- 政府의 農·畜·水産物價格安定事業 代行

- 消費地 流通改善事業 擴大(消費地 公益的 流通施設의 管理·運營, 農·畜·水産物 示範包裝 販賣事業, 流通資金供給, 流通教育 等)
- 農水産物 輸出 및 輸入(代行) 業務

Ⅲ. 公營都賣市場建設 長期計劃 構想(案)

1. 基 本 方 向

○ 公營都賣市場 建設은 今後 豫想人口 20萬名 以上의 消費都市를 對象으로 하고 여타의 地域의 都賣機能은 農協共販場 등 産地 民間流通施設이 擔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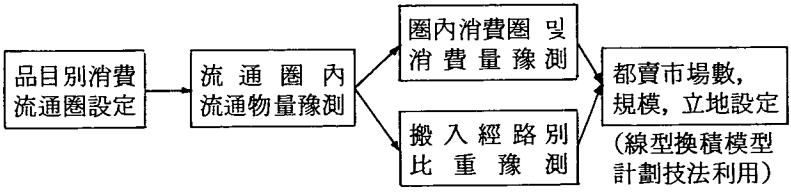
○ 都賣市場은 水産物 揚陸漁港都市를 除外하고는 青果物·畜産物·水産物을 동시에 取扱하는 綜合都賣市場으로 育成

○ 公營都賣市場은 當該 農水産物 消費流通圈의 流通量 대부분을 取扱할 수 있도록 計劃(青果物 80%, 畜産物〈牛·豚枝肉〉 80～85%, 水産物 60% 以上)

○ 新築되는 都賣市場은 商品去來의 競爭性을 높이기 위하여 可能한 限 部類別로 2個 以上의 指定都賣人을 둘 수 있도록 規模化

2. 都賣市場建設 長期計劃 構想

가. 計劃構想 基本節次



나. 品目別 消費流通圈의 設定

○ 靑果·畜産物 : 市級都市를 單一流通圈으로 하였으나 消費都市가 서로 인접하여 있고 商品搬入經路가 同一할 경우는 1個의 流通圈으로 統合

※ 設定된 統合流通圈

① 서울流通圈 : 서울, 성남, 의정부, 안양, 광명, 부천(일부)

② 인천流通圈 : 인천, 부천(일부)

③ 마산流通圈 : 마산, 창원, 진해

○ 水産物

– 大規模 水産物揚陸漁港을 중심으로 한 供給地 消費流通圈과 內陸地 中·大都市를 중심으로 한 純消費地 流通圈으로 區分

– 內陸地 流通圈은 각 流通圈 中心都市로부터 生産揚陸地 方向으로 商品이 逆流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區劃〈參考資料 3 參照〉

다. 流通圈別 都賣市場 取扱物量 豫測

○ 豫測人口 × 品目別 豫測 1人當 消費量(産地生産量基準)

= 年間 總流通量

○ 각 地域의 年度別 人口豫測은 지금까지의 趨勢에 따라 延長하고 1人當 消費量은 都市·農村別 消費量 豫測値를 基準으로 地域別 1人當 消費量 隔差를 勘案하였음.

○ 都賣市場流通量 = 年間 總 流通量 × 都賣市場經由目標比率

〈品目別 流通圈別 都賣市場 流通量 豫測値는 參考資料 2 參照〉

라. 流通圈別 都賣市場數, 規模, 位置의 判斷

(1) 判斷基準

○ 1個 都賣市場의 入住 指定都賣人數를 可能한 限 品目別로 2個

以上이 되도록 規模化하여 市場去來費用의 最小化를 圖謀

- ㅇ 각 流通圈의 크기(面積, 人口 등)와 旣存 商圈의 形成狀態 등을 고려하여 都賣市場數를 最小化
- ㅇ 市場建設 敷地確保와 商品의 搬入이 容易하도록 都市外廓 新開發地에 位置하도록 고려
- ㅇ 商品의 搬入, 去來 및 分配費用이 最小化되도록 각 立地의 都賣市場 適正 取扱物量을 年度別로 算定(線型換積計劃法〈transhipment linear programming〉 이용)

(2) 2000年까지의 都賣市場 新規施設所要判斷 結果

流通圈	市場數 (2000年)	位置	市場延建坪		市場敷地所要 (2000)
			1991	2000	
6大都市圈			.....	(千㎡)	.....
서울圈	5(7)	북부, 남서, 북서,* 성남 안양, (가락동), (노량진)	413.7	614.7	1,361.0
釜山	2	서부,* 동부 *	171.6	225.2	493.0
大邱	2	서부, 남부 *	68.7	90.1	192.0
仁川圈	2	남부,* 북부 *	74.2	88.9	196.0
大田	2	중북부, 남동부 *	51.0	65.4	141.0
光州	2	북서부, 남동부	56.8	71.3	153.0
(小計)	15(17)		835.9	1,155.7	2,536.0
其他都市圈	15	마산,* 창원,* 울산,* 수원 전주, 청주, 포항,* 진주 여수,* 목포,* 제주,* 군산* 구미, 이리, 춘천	219.2	328.0	665.0
合計	30(32)		1,055.1	1,483.7	3,201.0

註 1) * 表示市場은 水産市場棟 不包含

2) ( ) 內는 旣存市場(가락동시장 및 노량진수산시장) 포함 규모임.

〈參考〉 가락동市場 延建坪 : 197.1 千㎡, 垈地 : 547.3 千㎡

마. 都賣市場建設 優先順位와 節次

- ㅇ 流通隘路가 큰 大都市와 都市整備計劃上 時急한 流通圈부터 順次的으로 建設

- 市場建設 對象都市의 地方財政資金 負擔을 考慮하여 大都市의 경우 圈內 流通量의 50 % 以上을 擔當할 수 있도록 하는 規模의 都賣市場을 우선 建設하여 旣存 市場을 移轉시킴으로써 公營都賣市場 去來制度 早期 定着
- 都賣市場建設 着手 以前에 각 地域別로 충분한 事前檢討, 敷地確保 및 建設所要年數를 確保할 수 있도록 年次別 計劃을 樹立하여 推進

參 考 資 料

〈 參考資料 1 〉 農水産物 流通改善을 위한 流通施設 投資所要[1] 推算

對 象	2000 年까지		備 考
	物 量	所要投資額	
○ 産地流通施設		(億원)	
— 共同出荷組織育成	3,040 壁	273.6	單協輸送用 車輛
— 機械式選果場	3,072 壁	890.9	
— 農協産地共販場	134 個所	365.0	
— 産地屠畜場整備	53 個所	2,723.7	
— 水産物委販場增設	10 個所	577.5	
○ 都賣市場建設	延建坪 1,483.7 千坪	6,204.9	
○ 消費地 集配센터	37 個所	1,583.6	(旣存 : 4 個所)
○ 貯藏施設	-	2,274.2	冷凍, 冷藏, 製氷, 貯氷 低溫
○ 水産物加工施設	2,608.4 톤/年	10,135.6[2]	(穀類, 飼料, 屠畜 除外)
○ 合 計	-	25,029.0	

註 1) (流通助成事業分 除外) 자세한 內譯은 農村經濟硏究院, 全國圈 農水産物流通 改善 基本計劃 硏究, 1984. 12 을 參照.

2) 加工能力 基準으로 增加 所要分만 計上.

〈參考資料 2〉 公營都賣市場建設 對象都市 流通圈[1]의 都賣市場 取扱物量[2] 豫測

○ 靑果 및 畜産物

流通圈	人口		靑果		肉類(枝肉)	
	1991	2000	1991	2000	1991	2000
	(千名)	(千名)	.....	(千㎏)	.....	.....
6大都市圈						
서울	13,184.6	15,912.4	3,733.1	4,819.3	290.38	427.89
釜山	4,481.4	5,432.1	1,104.7	1,445.3	62.81	94.03
大邱	2,457.4	3,016.8	617.3	813.1	36.52	54.78
仁川	1,745.5	2,144.2	444.8	580.1	31.67	47.62
大田	1,005.9	1,205.4	238.4	311.8	19.28	28.94
光州	970.5	1,142.6	255.6	322.1	16.79	24.17
(小計)	23,845.3	28,853.5	6,394.0	8,291.8	457.46	676.42
其他都市						
馬山	918.0	1,141.6	235.5	310.7	10.98	16.70
蔚山	695.0	898.6	178.3	244.6	8.31	13.15
水原	460.9	570.3	110.9	147.3	9.21	13.94
全州	481.0	561.2	110.3	140.7	8.15	11.63
清州	388.8	475.2	81.2	108.3	8.25	12.34
浦項	331.5	427.4	88.1	121.5	4.37	6.89
晋州	289.7	352.4	78.8	101.6	4.06	6.04
麗水	269.4	316.9	55.7	71.1	3.20	4.98
木浦	270.6	303.7	38.1	39.6	3.24	4.44
濟州	233.5	280.7	61.2	78.9	4.25	6.25
群山	222.5	263.1	57.1	71.6	2.66	3.85
龜尾	-	259.4	-	67.9	-	4.06
裡里	-	226.8	-	56.9	-	4.70
春川	-	215.3	-	46.9	-	3.69
(小計)	4,560.9	6,292.6	1,095.2	1,607.5	66.70	112.68
合計	28,406.2	35,146.1	7,489.1	9,899.3	524.16	789.10
			(9,361.4)	(12,374.1)	(616.66)	(928.35)
全都市	31,310.3	37,707.6	(10,232.4)	(13,221.2)	(673.94)	(992.57)

註) 1) 해당년도에 人口 20萬 以上 豫想都市

2) 靑果 : 年間 總 流通量의 80%, 肉類(牛豚枝肉 基準) 85%

(參考) 가락동市場 年間取扱能力 : 靑果物 1,414 千㎏, 肉類 94.5 千㎏

○ 水 産 物

流 通 圈[1]	1991		2000		圈域包含[3] 市・郡數
	對象人口	都賣市場 經 由 量[2]	對象人口	都賣市場 經 由 量[2]	
	(千名)	(千M/T)	(千名)	(千M/T)	(個)
大 都 市 圈					
서 울	14,425.4	549.4	17,206.7	785.0	17
大 邱	2,886.4	93.3	3,278.3	129.2	8
大 田	1,430.3	34.9	1,594.7	47.8	6
光 州	1,477.2	51.2	1,576.3	68.8	7
(小 計)	20,219.3	728.9	23,656.0	1,030.8	38
其 他 都 市 圈					
水 原	1,643.7	35.1	1,910.8	49.1	9
全 州	719.7	17.9	762.7	23.5	4
淸 州	807.9	15.9	822.2	20.1	6
晋 州	678.8	18.6	679.6	24.4	6
龜 尾	-	-	593.9	16.8	5
裡 里	-	-	344.6	10.2	2
春 川	-	-	413.2	10.0	5
(小 計)	3,850.1	87.6	5,527.0	154.1	37
合 計[4]	24,069.4	816.5 (1,360.9)	29,183.0	1,184.8 (1,974.7)	75
內 陸 地 全 體	28,077.8	(1,464.5)	31,725.1	(2,038.4)	102

註 : 1) 沿岸漁港都市 直接流通圈을 除外한 內陸地 流通圈中에서 中心都市의 人口가 20 萬名 以上의 消費圈 對象

2) 魚類・貝類의 年間 流通量의 60 %

3) 圈域別 市・郡包含 內譯은 〈 參考資料 3 〉 參照

4) ( )안의 數値는 總 流通量

〈 參考 〉 既存 市場의 年間取扱能力 : 서울可樂洞 189 千M/T,
서울 노량진 233 千M/T

〈 參考資料 3 〉 **水産物揚陸地 및 內陸地의 消費, 流通圈 區分 內譯**

區 分	包 含 市 郡	市郡數(地域)
경 기 도 (3)		
서 울 권	서울시, 안양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1/2, 광명시, 동두천시, 양주군, 남양주군, 파주군, 고양군, 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양평군, 철원군	17
인 천 권	인천시, 부천시 1/2, 시흥군,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6
수 원 권	수원시, 송탄시, 여주군, 평택군, 화성군, 이천군, 용인군, 안성군, 반월출장소	9
강 원 도 (4)		
춘 천 권	춘천시, 춘성군, 홍천군, 화천군, 양주군,	5
원 주 권	원주시, 횡성군, 원성군, 영월군	4
동 해 권	동해시, 강릉시, 태백시, 평창군, 정선군, 명주군, 삼척군	7
속 초 권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4
충 청 북 도 (2)		
청 주 권	청주시, 청원군, 보은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6
충 주 권	충주시, 제천시, 중원군, 제원군, 단양군	5
충 청 남 도 (5)		
대 전 권	옥천군, 영동군, 대전시, 금산군, 대덕군, 연기군	6
천 안 권	천안시, 아산군, 천원군	3
부 여 권	공주군, 논산군, 부여군	3
보 령 권	서천군, 보령군, 청양군, 홍성군	4
서 산 권	예산군, 서산군, 당진군	3

區 分	包 含 市 郡	市郡數(地域)
전라북도 (5)		
전주권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4
군산권	군산시, 김제군, 옥구군	3
정주권	정주시, 정읍군, 고창군, 부안군	4
이리권	이리시, 익산군	2
남원권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남원군, 순창군	5
전라남도 (6)		
광주권	광주시, 금성시, 광산군, 담양군, 화숙군, 나주군	6
목포권	목포시,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	4
여수권	여수시, 순천시, 곡성군, 구례군, 광양군, 여천군, 승주군, 여천출장소	8
고흥권	고흥군, 보성군	2
해남권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5
영광권	함평군, 영광군	2
경상북도 (6)		
대구권	대구시, 달성군, 군위군, 경산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8
포항권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영일군, 월성군, 영천군, 울릉군	7
안동권	안동시, 영주시, 의성군, 안동군, 문경군, 예천군, 영풍군	7
구미권	김천시, 구미시, 금릉군, 선산군, 상주군	5
영덕권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3
울진군	봉화군, 울진군	2
경상남도 (6)		
부산권	부산시, 김해시, 양산군, 김해군	4

區　　分	包　含　市　郡	市郡數(地域)
마　산　권	마산시, 창원시, 진해시, 의령군, 함안군, 창령군, 밀양군, 의창군	8
울　산　권	울산시, 울주군	2
진　주　권	진주시, 진양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6
충　무　권	충무시, 통영군, 거제군, 고성군	4
삼 천 포 권	삼천포시, 사천군, 남해군, 하동군	4

討 議 內 容

司會(金榮鎭：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討議는 學界, 有關機關 및 政府의 代表 順으로 진행하겠다. 먼저 鄭福祚 高麗大 農大 教授께 부탁드린다.

鄭福祚(高麗大 農大 教授)：가락동都賣市場이 국민들의 기대 속에서 開場이 되었으나 현재 都賣市場인지 小賣市場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上場物量도 줄고 있다고 하는데 가락동市場이 잘 안되고 있는 데에는 여러가지 要因이 있을 것이다. 市場을 建設하기 전에 關聯者들이 유럽 등 外國見學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나라의 經濟·社會·文化的인 構造의 심층적인 硏究가 절실하게 필요했다고 본다. 마켓팅이란 經濟·社會·文化的 構造의 産物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꾸 外國 모델을 이야기 해 보아야 우리 實情에는 맞지 않다. 臺灣의 社會·文化的 構造와 經濟構造가 다르고 日本도 역시 다른데, 그것을 원용해서 우리의 問題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본다.

發表資料에 의하면 한 都賣市場에 品目別로 2個 以上의 指定都賣人을 둔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去來物量이 많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적을 때에는 經營不實을 초래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만 살아 남게 될 경우 문제가 될 것이다. 또 中央都賣市場을 만들고 地方都賣市場을 만든다고 할 때, 中央都賣市場에서는 上場物量이 많을 것이지만 物量확보를 제대로 못하는 地方都賣市場의 收益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그리고 都賣市場간의 價格差가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價格差의 幅이 좁으면 괜찮지만 현격할 때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것도 예상되는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리고 發表內容중, 약간 論理의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都賣市場을 育成·發展시켜서 都賣市場 經由物量을 增大시킨다고 한 반면 小賣市場 育成策에서는 産地와 直去來를 유도한다고 했다. 이것은 서로 相衝關係가 있다. 都賣市場을 경유하게 되면 場外去來 즉 直去來가 줄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論理의 모순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다음, 流通改善을 하기 위해서는 生産調節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패성이 강한 農産物은 貯藏에 한계가 있다. 가령 생선, 채소 같은 것을 어떻게 貯藏할 것인가. 理論的으로는 貯藏·加工을 한다고 하지만 貯藏을 하기도 어렵고 加工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렵더라도 生産調節이 좀 더 강조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가끔 流通마진이 많다든가, 어느 부분은 많고 어느 부분은 적다든가, 또는 青果物은 굉장히 많고 穀物은 적다고 하는 신문 보도가 있는데 이와같이 流通마진을 수평적으로 比較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반적인 이야기지만, 流通마진을 增大시키는 要因에는 부패성의 정도라든지, 위험부담요인, 社會的 要因, 制度的 要因 등이 있는데 수평적으로만 비교하여, 流通마진이 높아 前近代的인 流通行爲라고 단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小賣段階의 流通마진이 높은 理由를 높은 賃貸料와 權利金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賃貸制度의 문제로서 이러한 制度가 小賣段階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流通內部的인 문제가 아니라 外部的인 문제로서 流通이 改善되려면 이러한 外部的 要因을 충분히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流通段階를 축소시킨다고 했는데 보통 流通段階를 축소시키면 流通費用을 절감시킬 수 있다는 것도 理論的인 이야기이다. 그러나 直去來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流通마진이 줄어드는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市場交涉力問題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消費地 쌀小賣商이 産地에 가서 쌀을 購入해서 消費者에게 販賣한다고 할 때, 이것도 일종의 流通段階

의 축소인데 消費地 商人이 쌀을 싸게 파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交涉力問題가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流通段階만 축소시킨다고 해서 流通이 개선된다고 보는 것은 오해가 아니냐 하는 것이다.

司會 : 좋은 말씀해 주셨다. 다음은 建國大學 鄭燦吉 教授께서 연구참여도 하셨으니 좋은 의견 제시해 주기 바란다.

鄭燦吉 (建國大 畜産大教授) : 發表해 주신 內容의 基本的인 골격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여기 제시된 長期計劃構想(案)의 기본적인 주요 내용은 별 문제가 없지만 몇 가지의 意見相衝 부분에 대해 언급하겠다.

長期的인 構想에 있어서 2000年이라고 해야 앞으로 15年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長期計劃을 하나의 實行計劃으로 만들어서 연차적 施行問題를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報告資料에 公營都賣市場 32個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이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적인 年次計劃을 세운 實行計劃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이 實行計劃에 따라서 기존 農安法에 준한 實行計劃과 農安法에 준한 것이 최선의 都賣市場 流通이냐 하는 것을 반성해 보는 차원에서 그것을 탈피한 實行計劃, 이 두가지 경우에 대한 새로운 改善案이 나왔으면 좋겠다.

먼저 農安法에 준한 都賣市場 流通改善을 한다고 했을 때, 최소한 빠른 시일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地方大都市의 都賣市場이 流通量의 50% 정도를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만 公共性·公益性에 따른 都賣市場 制度化를 이룩할 수 있겠다. 制度的 都賣市場이 부족한 현상태에서는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기 때문에 類似都賣行爲의 번창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都賣市場 建設을 어느 都市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는 구체적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都賣市場에 의한 流通改善의 의지를 반성해 볼 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2,000달러에 가깝다. 일본이 都賣市場整備事業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이 1950년대인데 이때 所得水準이 약 1,000달러였고, 1975년에 1,900달러였는데

그때 이미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都賣市場 整備를 완전히 이룩한 상태였다. 일본은 都賣市場을 정비하는데 30년이 걸렸다. 그런데 日本이 30년 걸린 것을 우리는 1985년에 처음 개장해 보고 이거 안되겠다 하고 모든 계획을 유보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조금 성급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해 본다. 우리도 앞으로 30～50년은 내다 보아야 할 것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우리의 의지를 조금도 굽히지 말고 현실을 좀 더 반성해서 새로운 의지로 최소한도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都賣市場 流通構造를 개선하는 데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과연 우리가 都賣市場 類型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락동市場이 우리 실정에 꼭 맞는 都賣市場의 최선의 형태이냐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험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큰 都賣市場을 지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충격도 크다. 충격이 큰 반면에 여기에 대한 반성도 크게 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都賣市場內에서도 여기에 대한 충격을 잘 반영해서 보다 더 잘해 보려고 하는 상인들의 반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발표하신 내용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에 짓는 都賣市場은 근본적인 원칙에 의해서 敷地는 크게 확보하더라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물 자체는 우리의 50년 상관습을 어쩔수 없이 반영시켜 주어야 한다고 본다. 지나치게 현대화된 건물을 짓다보니, 50년동안 몸에 익혀온 상관행상 새로운 건물로 들어가서 적응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우리 실정에 맞는 건물구조, 돈이 적게 들어가는 都賣市場 流通을 지향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새로 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都賣市場 類型에 있어서 綜合都賣市場 개념이 과연 좋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綜合都賣市場이라고 하면 1970년대 일본에서 강하게 유행이 되고 있던 總合都賣市場 즉 "one stop shopping at wholesale market"의 개념이다. 都賣市場에서 모든 필요한 물건을 한번에 살 수 있는 都賣市場形態이지만 일본의 大都市에서는 總合都賣市場 計劃이 실패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機能을 한곳에 집어 넣다 보니까 물량의 유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교통의 혼잡

등으로 물량의 유동 즉 搬入·搬出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商機能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을 관리·지도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방향과 地域에 따라서 부류별 都賣市場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地方都市인 경우에는 都賣市場을 여러개 지을 수 없기 때문에 總合의 개념으로 몰고 가더라도 市場의 유동에 문제가 없고 관리·지도면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으로 문헌을 통해서 보았다.

그리고 여기에 또 複數都賣會社를 꼭 집어 넣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이다. 複數냐 單一이냐는 문제도 우리가 좀 반성을 해 볼 필요가 있다.

日本도 현재 「筑地」市場은 水産物의 경우 7個 都賣會社가 들어가 있지만 근래에 와서는 보통 2個의 都賣會社로 통합되어 複數都賣會社 運營의 體制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재 小規模 都賣市場에서는 單數의 都賣會社가 들어간 市場이 상당히 많이 있다. 가장 많이 들어갈 때는 13個까지 들어갔다가 서로 과잉경쟁에 의해서 일부가 파산을 하고 다시 이것이 5개로 조정되었다가 7개로 조정이 되었다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입주 都賣會社의 數의 問題도 우리의 여건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政府에서 農經硏을 통해 이와같이 좋은 長期構想을 만들어 내 놓았다. 이러한 構想이 실천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과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또 여기에는 반드시 資金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資金을 해결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日本은 1955년부터 都賣市場 施設近代化를 시작하면서 1955년에 補助豫算을 시작했다. 1965년에 보조금과 지방기채를 시작했고 1967년에 보조금, 지방기채 및 법률보전에 따른 都賣市場近代化資金을 마련해서 都賣市場 整備事業을 적극 지원했다. 정부에서는 이와같은 資金의 뒷받침을 최소한도 50% 이상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될 것이며, 地方都賣市場에까지도 시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이와같은 장기구상을 실현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類似都賣市場을 制度化시켜서 법에 따른 都賣市場으로 정착시킬 수 없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農安法을 초월했을 때에 類似都賣市場을 완전히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도 문제이다. 예컨대 類似都賣市場에서 활동하고 있는 委託商의 立場을 볼 때, 委託商을 세무적인 면, 세제적인 면, 법을 따르는 면에서 양성화를 시켜서 委託商으로 하여금 仲買人 내지 都賣市場으로 制度化시킬 수는 없겠는지 검토해야 한다. 委託商은 收集機能과 分散機能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 따질 때 가장 유통단계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들을 양성화, 제도화시켜서 모든 조건이 동등한 가운데서 競爭할 수 있는 制度的 뒷받침만 된다고 하면,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본다. 이와같은 委託商制度를 전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어떻게 하면 韓國型의 都賣市場類型으로 끌고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都賣段階를 줄이는 차원에서 볼 때 앞으로 깊이 연구를 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본다. 현재 日本과 거의 같은 農安法에 따른 都賣市場 流通이 최선일 것이냐 하는 문제와 현행 農安法을 초월한 새로운 都賣市場 流通體制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이냐 하는 문제도 여기에 구체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하겠다.

司會 : 감사하다.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 다음은 權元達교수께 부탁한다.

權元達(忠北大 農大 教授) : 원칙적으로 研究方向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한다. 그런데 발표 요지가 기술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애매한 표현이 많은데, 이것을 우선 페이지별로 지적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長期計劃에 대한 복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다.

우선 2페이지에 보면, 表에 類似都賣市場 去來比重이 서울이 67%, 釜山이 68%로 되어 있는데 언제 조사한 것인지 모르지만 조금 변화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産地流通은 農·水·畜協이 주도하여 生産者의 市場交涉力을 향상시키고 産地消費者를 위한 都賣機能을 담당하며, 肉類는 枝肉流通의 일반화를 도모한다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産地消費者를

위한 都賣機能을 農協이 담당한다는 말은 産地消費者를 위해 農協이 개설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集荷場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 다음 6페이지에 보면, 대체로 青果物 消費地流通量의 약 80%를 都賣市場 經由率로 보는 것 같은데 서울이나 大都市 경우에는 都市消費物量의 80%를 經由量으로 볼 수 있지만 地方都市의 경우는 80%가 너무 많이 잡혀있는 것 같다. 나의 경험으로는 약 2/3 정도인 60～70% 정도만 都賣市場 經由率로 보아도 적합하지 않겠느냐 생각된다. 이것을 80%로 보느냐 2/3로 보느냐에 따라서 시설의 과잉투자나 과잉시설의 문제가 제기된다.

다음에 7페이지를 보면 都賣市場 建設 대상도시의 인구를 20만명 이상으로 고정시켰는데, 일본의 都賣市場法에서도 인구 20만명으로 가름하고 있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인구 20만명을 정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20만명 이하에 대한 기준문제도 언급되어야 겠다.

또 같은 페이지에서 都賣市場運營의 정상화라 해 놓고 都賣市場 管理·運營에 대한 政府介入을 적극화 한다고 했다. 역시 都賣市場에 投資해서 公營都賣市場을 완전히 지어놓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政府介入을 적극화 한다는 의미로 쓰여진 것 같은데, 정부개입의 적극화라는 것이 商機能을 활성화 하는데 만능의 수단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또한 농·수·축협의 消費地市場에 있어서 직접적인 참여는 지양하고 都賣市場運營에 대한 발언권을 확보한다고 했다. 이 발언권 확보가 말하자면 무슨 流通協議會에 참여한다든지 아니면 현재의 大都市 消費地에 있는 共販場을 포기한다는 이야기인지 이것이 아주 애매한 이야기인 것 같다.

역시 7페이지에 정부의 價格安定事業用 備蓄物量을 都賣市場 上場을 통해 公開市場操作制度를 도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農安法에도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모든 비축물자를 사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8페이지에서 大都市 小賣分配網 改善을 위한 集配센터를 확대설치 한다 해 놓고 가능한 한 현재의 大都市共販場 施設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것이 현재의 共販場을 集配센터로 만든다는 구상인지 하는 것도 차제에 분명히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9페이지의 農水産物 流通公社의 機能定立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消費地 流通改善事業 확대라 해서 消費地 公益的 流通施設의 管理·運營을 한다고 했다. 이 관리·운영이라는 것이 流通公社가 관리·운영을 해야 된다면 流通公社가 民間都賣會社를 관리·운영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流通公社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都賣市場管理會社를 의미하는지 이것도 분명한 언급이 필요하다.

그리고 都賣市場 長期計劃構想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都賣市場은 논란할 여지없이 적어도 公營都賣市場 形態로 끌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재 산지여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며 都賣段階에 대해서 農安法에도 都賣市場 整備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다. 그러면 기존 都賣市場 통폐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통폐합 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새로운 건물을 지어서 公營都賣市場을 지어 놓으면 이런 것이 저절로 흡수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先建設 後運營 問題", 즉 운영상의 문제가 좀 있더라도 우선 정부가 投資를 해서 公營都賣市場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公營都賣市場 建設對象地域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 보면 30개 地域이 나와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나의 생각으로는 우선 도청소재지 수준에서 公營都賣市場을 건설하여 철저하게 운영해 보고 다음 단계에는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인구 20만명 이하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등 좀 기준을 정해서 단계적으로 公營都賣市場을 건설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다. 가령 도청소재지 단위에서만 公營都賣市場을 건설하여 商的機能 정상화를 정부가 유도하면, 다시 말해서 5~6개의 大都市에 都賣市場을 건설, 개장을 계기로 하여 出荷하는 모든 農水産物은 선별·포장해서 출하하도록 의무화 한다든가 하면, 상당히 빨리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단계별로 인구비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 都賣市場類型에 대해서는 綜合都賣市場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대체로 大都市에는 여러가지 類型이 있겠다. 청과, 수산이 일반적이고, 축산, 화훼 등이 있는데 나의 생각에는 식육도매시장은 서울, 부산 이외의 지역에는 현재의 屠畜場施設을 확대해서 거기에서 屠畜, 枝肉化하고, 서울, 부산에서는 식육도매시장을 분리하되 종합도매시장에 함께 입주시키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가락동에 畜産物都賣市場을 지어서 거기서 屠畜을 하여 枝肉을 上場할 모양인데 거기서 屠畜을 하게 된다면 流通改善側面에서 오히려 후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만약 거기에서 屠畜을 하게 된다면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의 오염현상은 매우 심각할 것이다. 가령 완벽한 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社會的 費用으로 국민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 부산의 食肉都賣市場은 枝肉만 上場하는 형태로 綜合都賣市場 속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都賣去來에 있어서 지금 정부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場外去來를 너무 장려하는 것 같다. 郡單位에서는 産地直去來를 자꾸 주선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都賣市場 機能을 활성화하지도 못하고 場外去來도 잘 안되고 그래서 정부의 政策方向이 선명하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場外去來라는 것은 集配센터로 하든 또는 생산자가 직접 팔든간에 都賣市場 機能이 방만해질 때 거기에 쐐기를 박는 것이 直去來이지 直去來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直去來라는 것은 都賣市場을 활성화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되므로 이것은 좀 금지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都賣市場 開設形態는 지금 協同組合의 共販場과 民間都賣會社 그리고 農協의 産地集荷場이라고 되어 있다. 이 産地集荷場 機能이 競賣를 한다고 하면 매력있는 점도 있지만, 競賣를 하면서 다시 또 都賣市場에서 競賣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水産物의 경우처럼 揚陸地에서 委販해서 消費地 水産市場에서 다시 上場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競賣를 두 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방향을 완전히 정립해 주어야 되겠다.

또 指定都賣人數에 있어서 이것을 2個 會社로 못박는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최근 대만이나 유럽, 특히 일본의 경우 都賣會社가 物量을 얼

마 취급해서 외형거래액이 얼마가 되면 都賣會社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외형거래액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목표에 맞추어서 인원도 고용하고 施設도 늘리는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두 개를 한다든가 세 개를 한다든가 하기 이전에 우리도 적어도 大都市에서의 都賣會社는 외형거래액을 얼마로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을 명시해서 그 목표를 놓고 人員도 조정하고 都賣會社 管理도 조정하는 형태로 나가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政府 流通政策의 일관성 문제가 상당히 논란이 된다. 가령, 商人들 얘기를 들어 보면 금방 이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 오다가도 또 바뀔 것이라고 하면서 따라오기를 주저함으로써 기회만 자꾸 넘긴다는 얘기들을 한다. 어떻게 보면 가락동시장이 정부가 개입했기 때문에 혼란해지고, 혼란하기 때문에 개입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 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가락동 都賣市場도 나름대로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너무 개입하는 것 보다는 원칙을 세워서 제시해 주고 정책을 자꾸 변화시키지 말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司會 : 감사하다. 玄公南박사께서는 혹시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표현이 너무 기술적이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기 바란다.

玄公南(農經研 農業流通室長) : 우선 主要都市의 都賣市場分布와 類似市場 去來比重의 資料는 1983 년도의 수치임을 밝혀둔다.

都賣市場의 經由率을 80 % 水準으로 유지한다는 문제는, 물론 本研究調査過程에서 제한된 人員으로 調査하여 불확실한 점도 있겠지만 類似都賣市場을 포함하면 대부분의 都市에서 都賣市場 經由率이 80 %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都賣市場의 指定都賣人數를 2 個 이상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問題에 대해서는, 本基本計劃에서도 가능한 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물론 物動量을 예측하고 또 그 조건하에서 가능한

한 市場數를 줄이고 그래서 적정한 規模가 된다면 2個 이상의 指定都賣人이 入住하여 충분한 收益을 올리는 그러한 規模로 育成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반드시 2個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司會：다음은 全國農水産物指定都賣人協會長으로 계시는 權載斗先生께서 말씀하시면 좋겠다.

權載斗(全國農水産物 指定都賣人協會長)：農水産物 流通改善과 都賣市場建設 長期計劃構想(案)의 基本骨格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단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本計劃 構想에서는 現都賣市場을 어떻게 이끌고 간다든지 어떻게 育成하겠다는 포괄적인 좌표만 제시되었지 세부적인 育成策이 없다. 예를 들면 첫째, 流通行政의 혼선으로 類似市場에 대한 뚜렷한 정비계획과 制度市場의 長期育成施策이 없다. 즉 政府의 流通施策 좌표가 없기 때문에 항상 政策이 흔들린다.

둘째, 行政府의 人事交流가 심하다. 人事交流가 심할수록 장기적이고 일관된 流通政策이 되지 못하고 자꾸 변경된다. 商去來는 관습적인데 관습적인 것을 하루 아침에 변경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다. 이러한 관습적인 商去來는 長期間에 걸쳐 하나 하나 改善되어야지 流通擔當者가 바뀔때마다 流通政策이 바뀌는 실정이다. 앞으로 양성된 專門人力에 의해 長期的인 좌표에 의해 일관된 流通施策이 요망된다.

세째, 都賣市場 育成施策의 한 方案으로 基礎가 튼튼해야 하겠다. 새로운 都賣市場을 建設해 놓고 보면 基礎가 흔들릴 때가 많다. 즉 可樂洞 市場에 入住한 商人의 경우도 이들은 대부분 類似都賣商人들이 필요에 의해 會社를 設立, 새로 建設된 制度市場으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이들 類似商人들은 制度市場의 基本目的에 따라 올 수 없다. 즉 이들 類似商人들은 지금까지 組織과 商行爲에 있어서 類似行爲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에 制度市場內에서의 公正去來行爲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司會：감사하다. 다음에는 實務에 직접 접촉하고 계시는 都賣市場 管理

公社 朴明在 理事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朴明在(서울시 農水産物都賣市場 管理公社 營業理事) : 可樂洞 農水産物都賣市場이 開場된지 9個月이 지난 현재 여론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設計에 대한 언급보다도 다만 어떤 類型의 모습으로 設計되었으며 그 設計된 옷을 어떻게 입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유는 設計된 대로 現實을 收容할 때 과연 다른 어떤 政策的인 부분의 要素가 감안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옷을 입혀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可樂洞 市場은 출발당시부터 指定都賣人 資格基準, 收容되는 商人의 숫자 문제와 관련, 또 숫자와 관련된 商人들의 分類問題 등이 制度指向的인 면에서 부합되지 못했다. 즉 당초 可樂洞市場 施設의 設計에서는 仲買人店舖가 680個로 仲買人은 680명만 入住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仲買人이 1,600여명 入住하였고, 또한 현실적인 收容問題에 부딪쳐 補助仲買人 2,500여명을 收容하게 되었다. 이것은 可樂洞市場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建設될 都賣市場의 運營에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한편 流通參加者의 競爭을 促進하는 측면에서 보면, 競爭은 형평상태가 이루어진 후에 競爭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못한 狀態에서는 競爭이 되지 않는다. 앞으로 地方都市의 農水産物都賣市場 建設時 특히 한 地域에 2개 以上의 綜合都賣市場을 建設할 때에는 형평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共同出荷組織의 育成支援問題와 관련하여 管理公社에서 全國의 農村을 돌아 본 결과 보편적으로 현 農業經營形態面에서 보면 生産者가 生産을 해서 자기 책임하에 販賣·處理까지 하는 比重은 극히 적었다. 예로 평창군의 고냉지 채소의 경우 40% 미만을 生産者가 出荷하고 있을 뿐 이미 파종상태에서 商人에게 販賣된 상태였고, 평택군의 채소와 오이단지에서도 비닐하우스 채로 商人에게 販賣된 상태에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앞으로 共同出荷組織과 生産者團體의 育成과 관련하여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겠다.

市場規模와 관련하여 可樂洞市場의 경우 원래 計劃대로 糧穀市場이 建設, 入住되었더라면 駐車問題에 봉착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建設될 都賣市場의 敷地만큼은 넉넉히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畜産物 都賣市場에 있어서 枝肉의 處理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副産物處理도 중요하다. 이렇듯 현 可樂洞市場은 畜産物 都賣市場으로서의 商形態와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司會 : 감사하다. 다음은 서울대학교 沈永根 教授의 말씀이 있겠다.

沈永根(서울대 農大教授) : 전체적인 長期計劃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한편 都賣市場의 計劃은 현재의 기존 市場을 감안하지 않고 새로 建設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의 與件(都心에 位置, 交通의 不便, 場所의 狹小 등)으로 보아 都心地를 벗어난 변두리의 넓은 場所에 市場을 建設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市場을 建設하는 데에는 利點이 있는 반면 短點도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즉 현재 可樂洞市場이 開設됨으로 해서 여러가지 편리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이 市場이 중심이 되어 市場圈을 形成하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市場中心圈을 形成하기 위해서는 편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市場을 都市의 변두리에 建設하게 되면 땅값 등은 싸고 좋지만 小賣商人의 입장에서 보면 편리하지 못한 위치에 建設될 소지가 매우 크다. 즉 우리나라의 小賣商人들은 매우 영세한 규모로 去來量 또한 매우 적다. 이러한 영세 小賣商들이 적은 物量購入을 위해 많은 교통비용을 들여가며 외곽지역의 都賣市場에서 物量을 購入하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都市의 人口增加가 예상되며, 都賣市場의 擴張이 요구되어 都市의 외곽지대에 都賣市場의 建設이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市場을 없앤다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市場을 최대한 改善하고 補完하여 長期計劃構想에 의한 新都賣市場과 발맞추어 단기적으로 현재의 市場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농수산물 유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생각된다.

都賣市場內 2個 以上의 法人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2個의 法人이 競爭할 수도 있고 반대로 談合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보다 합리적인 競爭을 위해서는 市場內 法人間의 競爭보다는 市場數增加에 의한 市場間의 競爭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農民의 입장이든 商人의 입장이든 어느 市場에 가니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아래 물건을 販賣하거나 購買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각 市場들은 物件과 商人을 유치하기 위하여 적정한 價格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協同組合의 發言權을 확보·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선결 문제는 都賣市場에 대한 發言權 확보·강화 면보다는 協同組合을 市場과 연결하여 안전하게 物量을 확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현재 可樂洞 市場의 가장 큰 문제는 供給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去來量이 없다. 즉 可樂洞 市場에 물건을 보내봐야 좋은 價格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市場에 物量을 出荷하게 된다. 결국 선결문제는 去來量을 늘림으로써 전체적으로 效用을 올릴 수 있는데 可樂洞 市場의 施設이 잘되어 있는데 商人이 준다든가 物量이 준다는 것은 市場自體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可樂洞 市場의 出荷物量을 늘리는데 있고 그것을 위해 供給量과 需要量을 늘려야 된다. 供給量을 늘리는 方法은 協同組合을 市場에 연결하여 協同組合이 市場에 물건을 보내고 市場은 出荷物量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運營이 된다면 協同組合의 出荷는 많아질 수 있고 市場의 需要도 늘어날 것이다.

都賣市場 建設時 市場面積을 강조하는데 市場面積은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그러나 그것은 자동차를 利用하는 購入者에게는 유리할지 모르나 도보를 利用하는 購入者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小賣商人이나 消費者들이 주위의 類似市場이나 小賣市場 혹은 구멍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이유 중의 하나가 時間과 交通費의 절약과 편리성 때문이다. 이것은 都賣市場이나 小賣市場이나 그 원리를 벗어날 수는 없다. 또한 都賣市場이 넓은 만큼 주위의 道路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 可樂洞 市場은 충분한 道路施設이 안되어 있다. 주차시설만 잘 되었지 市場을 벗어나면 道路가 막

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오히려 小規模로 여러 개의 市場을 建設하는 것이 商人과 消費者의 입장에서 유리하다. 현 政策은 편의성 위주보다는 大量去來에서 오는 規模의 經濟性만 강조했지 利用者를 위한 規模의 經濟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듯 하다.

司會 : 다음은 農漁村開發公社의 宋鍾益 流通本部長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宋鍾益(農漁村開發公社 流通本部長) : 첫째, 구체적인 所要資金計劃이 없고, 단지 所要資金은 中央 또는 地方政府에서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앞으로 建設될 新都賣市場에 엄청난 所要資金이 필요할텐데 과연 中央 및 地方政府의 財政 형편상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러한 所要資金을 반드시 中央 및 地方政府의 財政 부담이 아닌 民資를 유치하는 方法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될 경우 市場이 民間에 의한 資本參與를 시키는 동시에 運營도 參與시키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둘째, 都賣市場을 運營·管理할 수 있는 人材가 부족하다. 農漁村開發公社에서 流通教育院을 設置·運營하여 현재 都賣市場의 流通從事者인 管理 및 經營者, 競賣士, 仲買人들을 위한 단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규모가 작다. 앞으로 政府次元에서 中長期 教育을 실시해 都賣市場 流通從事者를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세째, 현재의 農漁村開發公社가 農水産物流通公社로 바뀜에 따라 流通公社에 대한 機能의 再定立이 요망되고 있다. 이에 맞추어 本 基本計劃에서 많은 언급이 있어 앞으로의 機能定立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특히 農水産物 輸出 및 輸入代行 業務에 대한 언급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消費者를 위한 農産物의 輸入이 生産者團體에 의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生産者들에게 빈축을 사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러한 業務를 政府機關인 流通公社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經濟가 발전될수록 農水産物 輸入 또한 계속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이

렇게 늘어나는 品目 또는 物量에 대해서는 農水産物 流通公社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農民의 불만을 차차 해소해 나가야 되리라 생각한다.

네째, 流通改善事業 가운데 특히 중요한 事業중의 하나가 規格, 等級 및 包裝事業인데 매우 미진한 상태에 있다. 앞으로 이러한 事業은 生産者團體가 주도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流通助成事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都賣市場의 機能도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司會: 감사하다. 다음에는 水協의 閔部長께 한 말씀 부탁한다.

閔庚言(水協中央會 流通部長): 研究하신 기본골격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다. 그러나 水産物이 農産物뒤에 붙어 따라가는 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發表內容에서 보면 都賣市場 개설지역에 대한 기준을 人口 20만명 이상의 都市로 설정하고 있다. 아마 農産物都賣市場에 대해서는 20만명이 적정 도시인구가 될지 모르겠지만 水産物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본다. 즉 시설측면에서 水産物都賣市場과 農産物都賣市場은 投資하는 投資額이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水産物은 製氷, 冷凍, 貯氷, 冷藏施設이 없이는 水産物供販場으로서의 機能이 어렵다. 農産物都賣市場보다는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이 製氷, 冷凍, 貯氷, 冷藏施設이기 때문에 투자면에서도 農水産物都賣市場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水産物都賣市場이다.

또 한가지 流通面에서도 農産物流通과 水産物流通과는 상당히 간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農産物은 産地에서 公正한 去來가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水産物에 있어서는 水協 産地委販場에서 揚陸되는 水産物의 약 80% 이상을 公正去來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왜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도로가 시·군면까지도 포장이 되어 교통수단이 많이 좋아졌다. 따라서 水産物의 경우 産地에서 公正價格이 형성되어 이것이 消費地까지 가격을 주도하고 있는데, 市·郡·面에 있는 都賣業者들이 그 중간에 있는 消費地都賣市場에 다시 가서 競賣에 참가하여 사가지고 市·郡으로 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市·郡·面에 있는 水産物 都賣商

들은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農産物의 都賣市場을 이용하는 仲買人보다는 水産物의 消費地都賣市場을 이용하는 仲買人이 굉장히 취약한 것도 이런 관계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참고로 수년 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현대식 水産物共販場을 어느 정도의 都市에 개설을 해야 經營側面에서 적당하느냐를 검토해 보았더니 약 50만명 이상의 都市에 現代式 水産物共販場을 施設해야만 經營側面에서 赤字를 보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참고로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系統出荷組織育成에 있어서 農協은 單位組合을 이용하고 水協은 漁村契에 출하전담을 시켜서 直出荷를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이것은 조직상의 문제가 있다. 農協의 單位組合은 協同組合이고 法人體이지만, 漁村契라는 것은 대부분 部落單位의 非法人 組織이다. 물론 法人漁村契가 있기는 있다. 한 부락에서 잡은 것을 直出荷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또 水産物의 特性상으로 볼 때도 多數魚種을 동시에 漁獲하는 것이 水産物이다. 다시 말해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이 農産物이지만 水産物은 같은 業種이라도 한 그물에 수개 魚種이 같이 잡힌다. 또 流通業者들도 特定 魚種別로 競爭에 참가하는 區分이 되어 있다. 즉, 水産物 仲買人들은 갈치만 취급하는 중매인, 조기만 취급하는 중매인 다 다르다. 수십 가지의 魚種이 한 漁村契에서 生産되었을 때 이것을 분류해서 等級을 나누어서 出荷해야 되는데 直出荷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문제도 지적될 수 있다.

또한 水産物流通은 農産物과는 조금 다르다. 지금 消費地都賣市場이 상당히 많이 있고 水協共販場도 內陸地에 9개나 있지만 水協共販場이 잘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 水協共販場이 運營되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共販場으로서 또는 都賣市場으로서의 公正去來를 결정할 수 있는 機能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상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너무 협소하고 도로가 발달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언제부터 유래가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産地仲買人과 內陸地仲買人이 이미 결탁되어 있고 價格은 産地에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都賣市場에 上場하는 것이

水産物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이렇다고 볼 때 直出荷의 效力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內陸地都賣市場이고 水協共販場이고 간에 본연의 機能을 발휘 못했을 때는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系通直出荷는 하등의 의의가 없다고 지적할 수 있겠다.

또 한가지 流通圈 설정에 있어서 産地方向으로 다시 역류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流通圈을 설정했다고 했는데 水産物의 特性은 좀 다르다. 農産物은 쌀의 경우 경기도에서도, 전라도에서도, 제주도에서도 生産되지만 水産物은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漁獲物과 서해안,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漁獲物이 고정되어 있다. 어차피, 조기는 대관령을 넘어가지 않으면 강원도 사람이 못먹고, 동태는 대관령을 안넘어 오면 서울사람들이 못먹는데, 굳이 역류를 따져가지고 流通圈을 구분한다는 것은 水産物의 경우에는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다.

조금 아쉬운 것은 人口 20만명 이상의 都市에는 都賣市場을 형성해서 일반 都賣人들이 경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農·水協이 전담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기왕에 農·水協이 가지고 있는 共販場의 앞으로의 존폐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방향제시가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을 것 같다.

끝으로, 農産物과 水産物은 완전히 별개의 品目이다. 그래서 앞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에는 農産物은 農産物대로 水産物은 또 水産物대로 따로 연구하여서 발표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司會: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다. 다음은 畜協의 李昌琳 이사께서 말씀해 주시겠다.

李昌琳(畜協中央會 理事): 研究結果의 대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다만, 2페이지를 보면 畜産物都賣市場은 屠畜場을 병설하고 있어 枝肉의 地方肉 搬入이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生産輸送에 의한 流通費用이 過多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畜協에서 몇 차례 標本調査를 한 바 있다. 남원에서 올라오는 경우와 강원도 원주에서 올라오는 경우 등 여

러가지 경우를 조사했는데 輸送費가 쇠고기 12%, 돼지고기 50%라고 한 것은 사실과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만일 地方肉搬入이 반드시 유리하다면 지금 현재 都賣市場에서와 같이 生畜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費用을 계산해 보면 어떤 때는 生畜으로 올라오는 것이 枝肉보다 더 이익이 될 경우가 있다. 精肉業者가 都賣市場에서 競落을 할 때, 地方에서 搬入된 것은 약 5～10%가 가격이 싸다. 왜냐하면 똑같은 고기의 똑같은 枝肉이라도 質의 차이 때문에 地方에서 가져온 것은 상대적으로 값이 떨어진다. 또 地方에서 屠畜했을 때 副産物 處理가 상당히 곤란하다. 현재 協同組合은 系統出荷를 통해 生産者에게 제값을 받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副産物價格에 따라 農民의 受取價格이 크게 좌우가 된다. 地方에서는 副産物價格이 안나가지만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제값을 받을 수 있다.

현재 畜協이 가락동시장에 都賣市場을 건설하는데 그것을 分離하는 것이 좋겠다는 研究報告가 나와 있다. 그런데 畜協立場에서는 병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왜냐하면 地方肉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保冷車 즉 冷凍·冷藏車를 이용해야 하며 이때 사실은 費用이 더 들어간다. 이 研究에서는 費用을 어떻게 계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枝肉은 散積해서는 안되며 保冷車에 매달아서 가져와야 된다. 그렇게 되면 한 차에 몇마리 못 싣는다. 肉類輸送에 있어서는 商品의 질에 따른 價格差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連動價格이라고 해서 價格을 묶어 놓고 있지만 만일 원칙적으로 자율가격에 맡긴다면 品質에 따라서 價格差가 많이 난다. 이런 것을 細部計劃 수립할 때 충분히 고려해 주기 바란다.

또 가락동에 畜産物都賣市場을 건설하는데 133億원이 들었다. 그중에서 屠畜施設費가 약 100億원이고 나머지 약 25億원이 競賣施設費用이다. 比重으로 보아 屠畜場에 굉장히 많은 投資가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移轉하게 된다면 큰일이다. 그리고 가락동에 副産物市場이 開設되어 있지 않아 문제이다. 당초에 서울市에서 設計할 때에 副産物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큰 착오이며, 그 설치를 지금 요청하고 있지만 場所가 없다고 해서 허용이 안되고 있는데 都賣市場에는 반드시 副産物市場이 병설되어서 農民이 生産한 것을 제값을 받아 주도록 해야 되겠다.

또 가락동시장의 특징은 과거에 枝肉으로 流通하던 것을 精肉으로 流通하도록 시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長點이 많다. 副産物의 集中利用이라든가 또는 包裝하기에 따른 品質保存面의 長點이 있다. 그리고 현재 零細精肉業者들이 枝肉을 하나씩 가져가지만 그렇게 되면 자기가 필요로 하는 部位만을 필요량 만큼만 가져갈 수 있어 資金의 낭비가 적게 되는 등의 利點이 있다.

다음으로 報告內容중 6페이지에 나와 있는 家畜市場이다. 작년도에 研究報告를 보면 市場을 130개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家畜市場은 현재 약 300個所가 있는데 그것을 市·郡에 1개소씩의 家畜市場을 둔다는 원칙으로 競賣市場化하여 家畜市場을 現代化한다고 해서 130個所로 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發表된 計劃(案)에는 50～60個市場으로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 農民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너무 줄이면 상당히 지장이 많다. 家畜市場이란 農民들이 소를 끌고 나와서 그것을 팔고 송아지를 사가지고 가는 곳이며 살소라고 해서 肥肉牛는 都市에서 장사꾼들이 와서 사가지고 간다. 사실 畜協 입장에서는 農民에게 비중을 두어서 家畜市場을 現代化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都市 주변에만 이러한 현대식 살소시장을 증설하고 農村에는 오히려 더 市場數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왜냐하면 전에는 農民들이 직접 소를 끌고 市場에 나왔었는데 요즈음은 그것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商人이 또 하나 끼여들었다. 그래서 商人들이 직접 農家에 가서 家畜을 사며, 農民들은 農家에서 바로 商人에게 家畜을 판다. 그래서 農民所得은 이들 商人의 마진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러니까 家畜市場이 줄어들므로써 상인들만 좋게 되고 生産者 입장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점도 있다.

또한 7페이지 輸入肉·包裝肉 관계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輸入肉은 일체 放出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자급자족이 충분히 될 것 같다. 현재 소값이 좀 떨어져서 農民한테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자급기반이 조성되었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輸入을 안하고 國內資源을 아껴서 어떻게든 자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韓牛包裝肉을 都賣市場에 上場시켜서 價格을 競爭的으로 형성시킨다

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지만 실제 시행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包裝肉을 만들 때는 枝肉을 競落해다가 만들게 되며, 결국 두번씩 競落이 되는 것이다. 包裝肉은 수퍼마켓 등과 같은 채널을 통해서 販賣되기 때문에 현재 다른 것은 連動制로 價格을 묶어 놓고 있지만 包裝肉만은 자율가격에 맡기고 있다. 그래서 包裝肉의 去來는 市場機能에 맡겨서 수퍼마켓 및 製造業體別로 競爭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당초에 畜協은 包裝肉을 만드는데 等級制를 도입하여 等級別, 部位別로 等級化하려고 했는데 法的 뒷받침이 없어서 애로가 있다. 따라서 法的인 뒷받침으로 계란이라든가 닭고기, 돼지고기 등을 전부 포함하여 農産物規格法을 제정하든지 農安法에 포함시켜 法制化를 해주면 좋겠다. 현재와 같은 行政的 指導만으로는 等級化의 보급이 어렵다.

또 畜協이 研究한 바로는 모든 것을 包裝·規格化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었다. 즉 包裝肉만 좋은 것이 아니라 消費者가 精肉店에서 용도에 따라 필요한 部位 또는 필요한 양을 구입할 수 있도록 消費者 자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병행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1980 년대까지는 包裝肉 60 %, 枝肉 40 % 수준으로 유도할 계획이며, 참고를 바란다.

그리고 農水産物 流通公社 設立에 대해서는 물론 찬성이지만 畜産物은 일반 農産物과 다른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이 고려되기 바란다. 屠畜場을 대부분 民間이 운영하고 있다. 이것을 農水産部와 협의해서 公營化하고자 하는데, 報告內容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것이 꼭 좀 되도록 협조를 해 주었으면 한다. 畜産物이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가 流通上의 비리문제이다. 地方肉이 搬入되는 것도 비리를 통해 그 사람들이 어떤 利益을 얻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것은 제시하기 어렵지만 위생 면이라든지 비리라든지 하는 것을 고려해서 屠畜場을 꼭 公營化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해 주었으면 한다.

司會 : 감사하다. 다음에는 農協의 金昌洙이사께 부탁한다.

金昌洙(農協中央會 理事) : 앞서 여러분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으므로 農協과 직접 관련이 되는 두 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겠다.

우선 産地流通의 效率化를 위해서 施策方向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 생각과 같고 또 현재 農協이 政府의 支援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아주 동감한다. 아마 여기에서 作目班이라고 표현한 것이 協同出荷班을 말하는 것 같은데 協同出荷班이 産地流通의 하나의 근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생각이고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先渡資金 支援, 包裝資材 供給 등을 현재 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 10,000여개 되는 協同出荷班이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理想的인 協同出荷班으로서의 구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문제로 남아 있다. 그래서 農協은 앞으로 이것을 우리가 理想的으로 생각하는 協同出荷班으로 구현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內實化推進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여기서 育成支援方向을 제시해 주신 것은 너무나 저희와 똑같은 방향으로 제시해 주어서 감사하다.

또 한 가지는 이미 權교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大都市의 市場, 人口 20만명 이상의 市場, 人口 20만명 이하의 市場 등 3段階로 구분한 것 같은데 이렇게 구분한 것이 消費地市場으로서의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 人口 20만명 이하 都市의 市場에서만 農協이 共販場으로서 流通을 담당하고, 大都市 消費地市場에서는 가급적 직접 참여는 止揚하고 발언권을 확보한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한 참뜻을 잘 모르겠다. 원래 都賣市場이란 政府나 地方自治團體의 資金에 의해서 설립되어 都賣會社가 입주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동안 公正去來의 불모상태에서 生産者團體인 農協이 그나마 公正去來를 유도한다는 뜻에서 5大都市에서는 中央會가, 中·小都市에서는 주로 特殊組合이 자기자금에 의해서 共販場을 설치·운영함으로써 公正去來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다. 현재 가락동市場이 설립되고 나서 競賣制度를 도입해 公正去來를 유도하고 있지만 共販場 이외의 他都賣市場은 아직도 원시적인 委託去來가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中小都市나 大都市에서 農協이 그래도 公正去來를 선도적으로 유도를 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도 있어서 農協이 大都市에서는 손을 떼고 발언권을 확보해라 하

라 하는지 알 수 없다. 生産者團體가 당연히 生産者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가 生産에서부터 販賣까지 일관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메이커 자신이 판매와 消費者에 대한 사후봉사까지 하면, 자기 상품의 流通過程에서 어떤 商品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外國의 예를 봐도 일본의 경우 東京 한복판에 있는 「간다」市場이 農協에서 경영하는 都賣市場과 民間이 경영하는 都賣市場 2개가 같이 선의의 競爭을 하면서 잘 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大都市에서의 직접적인 참여는 止揚을 하고 발언권을 확보한다고 표현했는지 모르겠다.

마지막으로 流通公社의 機能定立에 있어서 農水産物의 輸出 및 輸入業務에 대해 農開公에 계신 宋本部長 말씀은 그 동안의 農水産物 輸入에 대해서 무슨 불만이나 잡음이 나온 듯이 얼핏 들렸는데, 현재 農水産物 輸出入의 業務代行이나 業務執行은 무역업의 등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生産者團體인 協同組合도 協同組合法에 의해서 고유의 업무를 집행하는데 수반되는 모든 업무를 하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 그런데 流通公社가 특별히 담당할 輸出入業務를 지정하여 定立을 시켜 놓을 정도로 어떤 業務의 特殊性이 존재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司會 : 감사하다. 나중에 玄박사께서는 종합해서 의문이 계신데 대해 답변을 해 주기 바라며, 다음에는 가락동都賣市場을 운영하느라 수고하시는 서울시 農畜課長께서 말씀해 주기 바란다.

李炟周(서울시 農畜課長) : 가락동시장은 처음 計劃段階에서 여러 해 걸렸지만 그때만 해도 유수한 大學教授 또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관여하여 가장 이상적이라고 해서 계획을 하고 시작을 했던 것이다. 그것이 여러 해동안 과정을 밟아 오면서 큰 施設을 갖출 때까지는 많은 칭찬도 받았다. 이것이 동양의 제일이니, 세계적이니 하는 말을 들어 왔지만 실제 商人들을 입주시키고 運營을 하다보니 이제는 완전히 실패작이라는 평판만 있을 뿐, 화려한 지난날의 칭찬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비

록 실패작이라고 평을 받을망정 그 속에는 아마 분명코 단점 뿐 아니라 장점도 있을 것이다. 지금 단점만 얘기를 했는데 장점도 좀 끄집어 내어서 평가해 주었으면 한다. 여기 研究報告書에는 가락동시장은 실패작으로 제쳐 놓은 상태에서 연구한 감을 받았다. 가락동시장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할 시장이며 남이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해 놓은 것인데 이 시장을 과연 어떻게 개선하고 보다 활성화해서 정상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길이 없는가를 이 研究에서 조금이라도 언급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게 된다. 앞으로 玄박사께서는 이점을 좀 더 研究해 주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다.

司會 : 감사하다. 다음은 김범근 經濟企劃院 農水産豫算擔當事務官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김범근(經濟企劃院 農水産豫算擔當 事務官) : 우선 政府도 이제까지 生産基盤投資를 꾸준히 해 왔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젠 어느 정도 자급수준에 도달했고 해서 앞으로 政策의 方向을 流通이나 價格安定을 위한 투자 방향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이번 政策協議會 議題인 流通改善과 都賣市場 建設에 대한 構想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다. 다만 長期構想인 流通改善이라든지 都賣市場 建設에 소요되는 막대한 財政은 사실 經濟企劃院의 소관업무이다. 公營都賣市場인 경우에 83년부터 投資를 시작했는데 애초에는 國庫支援이 建物費의 50%만 支援되었다. 그런데 여러가지 地方費負擔에 애로가 있고 해서 85년부터는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總事業費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막대한 財政所要分에 대한 財源의 조달방안(예를 들면 融資라든지 기타 基金)에 대해 어느 정도 研究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商業的인 營農이 점점 확대되고 流通部門에 대한 投資需要가 많아지면 막대한 財政所要에 대해서는 民間資本의 유치방안이 요망된다. 商業的 營農이 확대되고 農家人口가 계속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政策 중점이 계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司會：다음은 鄭在龍 經濟企劃院 國民生活課長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鄭在龍(經濟企劃院 國民生活課長)：첫째, 都賣市場建設 長期計劃構想(案)은 物的 流通施設擴充計劃에만 重點을 두고 있지 運營活性化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병행되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도 먼저 可樂洞 市場에 대한 運營活性化 方案이 검토된 연후에 全國都賣市場建設計劃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類似都賣市場이 法定都賣市場보다 더 市場 支配的인 원인을 分析해 보았으면 한다. 都賣市場의 物的 施設擴充보다는 運營의 원활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충분한 사전 硏究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物的 流通施設의 大規模化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된다. 그래서 小規模 都賣市場이라도 현재 類似都賣市場의 機能을 效率的으로 흡수할 수 있는 規模에 대한 硏究가 있어야겠다.

세째, 政府의 農畜水産物 價格安定事業을 새로 발족될 農水産物 流通公社가 전담, 대행토록 하겠다는 것에 대해 政府의 단순한 대행이 아니라 價格安定事業의 計劃과 집행을 보다 분명히 해서 價格安定事業施行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연계시키는 方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全品目을 對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일부 品目부터 段階的으로 擴大하는 것이 좋겠다.

네째, 産地와 消費地와의 直去來를 확대하는 문제와 都賣機能擴大의 논리는 기본적으로 상반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요즈음 쌀 등 일부 品目의 價格은 消費地에서 形成되는 것이 아니라 産地에서 더 높은 價格으로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반드시 産地와 消費地間의 直去來만이 능사가 아니라 생각한다.

司會：감사하다. 다음은 청와대 李相茂 선생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李相茂(청와대 비서관)：첫째, 流通에 있어서 政府와 民間과의 領域區分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이다. 流通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民間에 의

해 이루어지는 活動인데 政府가 여기에 얼마만큼 介入할 것인가에 대한 명백한 領域區分이 있어야 하겠다. 基本計劃構想(案)에 의하면 貯藏·加工産業 育成 등에 대해서 政府가 꼭 참여하여야 된다고 하여 政府의 介入을 지나치게 강조한 감이 있는데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私見으로는 政府의 너무 깊은 介入은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켜 잘 되어 가는 流通을 그르치는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반성해 보아야 하겠다. 政府의 流通政策이 매우 잘된 政策일지라도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政府의 일관성 없는 流通政策이 그대로 존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政府의 介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더 그르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流通의 핵심은 流通에 참가하는 生産者, 商人, 消費者間의 힘의 均衡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힘의 均衡에 있어서 지금까지 商人이 우위에 있었고 生産者나 消費者는 그보다 열위에 있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流通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商人이 횡포를 부린 적도 많았지만 商人은 商人대로의 機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힘의 均衡을 회복해 주는 것과 生産者와 消費者의 힘을 더 키워줌으로써 힘의 均衡을 유지시켜 주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物的인 流通施設投資面에만 치중하는 流通改善方案은 한번쯤 재고되어야 하겠다. 物的인 投資以前에 情報의 제공이라든지 필요한 資金의 支援이라든지 物量을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등의 問題가 먼저 先行되어야 하겠다.

세째, 힘의 均衡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公正性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흔히 稅金을 가지고 이야기들 한다. 類似市場이 問題가 되는 것이 사실 脫稅以外에는 다른 문제가 별로 없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流通問題가 效率的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면도 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이 脫稅이다. 脫稅를 問題로 삼아서 類似市場을 없앨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문제해결을 위한 한 方案으로서 稅金의 형평을 기해 주는 방법으로, 脫稅를 막자는 주장보다는 오히려 전체적으로 農畜産物의 流通에 종사하는 경우에 賦課되는 稅金을 전반적으로 낮추어 주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네째, 流通에 있어서 중요한 問題중의 하나는 流通의 效率과 費用에 관한 것이다. 流通의 마진을 이야기 할 때 流通費用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마진이 商人들의 利益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靑果物의 경우만 보더라도 流通마진 중 費用이 차지하는 比重은 크다. 그래서 流通費用을 어떻게 줄이고 流通效率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硏究가 필요하다. 이것은 반드시 物的投資를 통해서 流通效率을 올리고 流通費用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왜냐하면 物的投資에는 감가상각이라든지 金融費用이라든지 기타 費用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을 國家가 補助하더라도 결국 公共費用으로 남기 때문에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겠다. 결국 流通效率이나 流通費用面에서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物的投資以前에 競爭與件을 어떻게 形成해 주느냐, 경쟁분위기를 어떻게 造成해 주느냐 하는 것이 첩경이라 생각한다.

다섯째, 商行爲라는 것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관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流通問題를 생각할 때 먼저 관습에 대한 것을 파악해야 한다. 政府의 政策에 의해서 流通行爲나 商行爲가 갑자기 바뀌어 진다든지, 어제까지 형편없던 商去來 질서가 하루 아침에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類似市場은 왜 나쁜 것인가, 아울러 기존 法定都賣市場과 類似市場을 통합,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설령 그렇게 하였을 때 都賣市場의 處理, 후적지 사용 등에 대한 충분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여섯째, 현시점에서 都賣市場과 小賣市場의 機能을 과거처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流通與件의 변화 즉 需給狀況, 交通, 通信, 情報매체가 발달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어떤 特定地域에 都賣市場을 建設하여 거기서 商行爲가 이루어져야만 반드시 公正去來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은 모순인 것 같다. 실제로 전국이 일일 생활권화, 동시생활권화 된다면 전국의 商行爲가 동시에 都賣行爲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一物一價가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그렇다면 막대한 資金을 投入해 特定地域에 都賣市場을 建設해야 된다는 論理가 통용될 것이냐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이 볼 때

都賣市場의 經由物量이 반드시 80～90%까지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또한 直去來와 都賣去來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司會 : 감사하다. 金是文 水産廳 漁政局長께 말씀을 부탁한다.

金是文(水産廳 漁政局長) : 첫째, 流通參加者의 經營合理化와 規模의 適正化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流通段階를 축소시켜 流通費用을 절감시키는 問題에 있어서 과연 불필요한 流通段階는 어떠한 것인지, 또 이것을 行政上으로만 축소시키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이 간다. 과거에 水産廳에서 流通段階의 축소를 시도한 바 있으나 큰 실효를 못 거두고 文書上으로만 施行된 예가 있다.

둘째, 水産物 揚陸地 強制上場制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共同出荷組織 등에 의한 消費地都賣市場으로의 直出荷를 도모한다고 하였는데, 水産物의 揚陸地 強制上場은 水産資源保護令에 의해 水産資源을 保護하는 측면, 즉 産卵期라든가 稚魚를 잡는 것을 販賣過程에서 제지하기 위함이다. 直出荷問題에 있어서 慣行上으로 水産物은 農産物과 달리 많은 量의 고기를 잡은 어선이 어항에다 신속하게 고기를 荷役한 후 다시 조업을 나가는 것이 목적이지 거기서 價格을 타협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치 않는다. 水産廳에서 한 때에는 釜山, 군산, 仁川, 東海의 일부 어항에 대해 水産物을 直出荷 하도록 制度를 풀어 놓았으나 1984 년도 실적이 15톤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듯 直出荷는 우리의 실정에 거리가 있지 않나 생각된다.

세째, 도매시장의 活性化方案과 관련해서 仲買人에 대한 活性化對策과 稅制問題가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겠다.

司會 : 감사하다. 다음은 金漢坤 農水産部 農政局長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金漢坤(農水産部 農政局長) :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韓國農村經濟

研究院에 감사드리며, 研究를 담당한 研究陣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發表內容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다. 다만 財源의 동원 가능성, 地域別 特性을 감안한 年次別 計劃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農産物은 生産도 중요하겠지만 그것 못지않게 流通도 중요하다. 流通計劃이 잘 세워져야만 生産者나 消費者가 다 같이 피해를 안보게 된다. 工産品도 長期間 貯藏하였다가 販賣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은데 하물며 長期貯藏이 어려운 農産物을 제대로 流通시키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가장 前近代化된 것이 우리의 現實이다. 이렇게 볼 때 새로운 都賣市場建設만이 최선이냐 하는 問題는 제기될 수 있다. 가령 운동경기에서 경기 자체의 시비는 차후 문제이고 우선 여러 사람이 뛸 수 있는 공설운동장, 장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적어도 道廳所在地에 公營都賣市場을 한 개 이상 建設해 놓고 運營해 가면서 制度의 잘못을 시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可樂洞 市場의 試行錯誤는 서울市의 책임도 政府의 책임도 아니라 생각한다. 龍山市場에 있는 商人을 전부 흡수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살리다 보니까 이런 問題에 봉착된 것이지 처음부터 市場規模에 알맞게 能力있는 商人을 흡수했던들 이와 같은 問題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都賣市場建設을 중단해야 하느냐? 또 기존 都賣市場의 類似市場機能을 없애야 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 기존 시장의 機能은 최대한 살리면서 都賣市場機能을 높여 나가야 하겠다. 그렇다고 하면 都賣市場機能을 위한 場所가 필요한 것이다. 場所의 제공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거기에서 商行爲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評價는 추후의 문제인 것 같다. 이와 같이 市場에 대한 制度的인 문제, 商行爲문제 사회관행 문제 등은 앞으로 우리가 다듬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한다.

司會: 감사하다. 이번에는 成培永 副院長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한다.

成培永(農經研 副院長): 研究의 책임자로서 지금까지의 質問에 대해 답변을 하고자 한다. 먼저 두 가지의 原則的인 것을 말씀드리면, 적은 紙面

에 너무 많은 것들을 실어 놓은 결과 앞뒤가 안맞은 것도 있어서 여러분들께 많은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부분의 事項들 그 자체는 12권의 NMMPS報告書에 거의 모든 부분이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하며 要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경우가 생겼다. 그리고 지금 提示한 여러가지 案이라든지 處方이라든지 問題點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된다거나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은 아니며, 다만 하나의 方法을 提示한 것일 뿐이다. 하나의 예를 들면, 流通公社에서 輸出入事業을 代行해야 한다고 한 경우 農水産物에 대한 모든 輸出入事業을 모두 流通公社에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닌 것이다. 또 하나의 例로서 都賣市場에 法人은 2個 以上이 입주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반드시 2個는 아니며, 3個 또는 그 以上도 될 수 있다. 그동안의 研究에서 費用曲線으로부터 規模의 經濟를 추정해 본 결과 現在의 都賣市場에 2個以上의 都賣會社가 들어가게 되면 經濟效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都賣市場을 건설하려고 한다면, 規模의 經濟도 발생되고, 競爭도 동시에 시킬 수 있는 2個 以上의 都賣會社를 입주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그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現實에 비추어 볼 때 都賣市場建設이 계속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이다. 이는 都賣市場 거래물량을 80%로 할 것인가? 아니면 60%, 70%로 할 것이냐 하는 問題에 봉착되어 도매시장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될 것인가 하는 問題이다. 그러면 어떤 市場類型을 都賣市場으로 정의할 것인가 하는 것도 問題이다. 단순히 消費地를 중심으로 하여 가락동시장과 같은 것을 都賣市場으로 보느냐 아니면 生産者가 제일 처음으로 販賣하는 市場을 都賣市場으로 보느냐인데, 都賣市場 거래물량 추정은 뒤에 말한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추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外國의 경우를 살펴본 결과 都賣市場 經由率 자체가 80% 정도였으며, 우리나라도 현재 農民과 商人이 직접 消費者에게 물건을 내놓는 段階를 살펴본 결과 小賣商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고 都賣市場에 출하하는 물량이 약 80%였다. 여기에서의 都賣市場의 개념에는 法定 및 類似都賣市場을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것을 制度化 할 수 없는가 라는 의미에서 접근되

었으며 앞으로 都賣市場의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假定을 基底로 하고 計劃이 세워졌다. 따라서 都賣市場을 모두 새로 지을 것인가? 전부 再配置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도매시장을 가장 效果的으로 改善하고 그것이 안되면 再配置하고 그것도 안되면 새로 建設한다는 것이다.

지금 현재로 보아 都賣市場을 建設하는데 얼마만큼의 資金이 所要되는가를 報告書에서 年度別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都賣市場建設에 있어서는 초기 단계에서 政府役割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즉, 어느 단계가 지나면 政府도 할 수 있고 政府와 民間이 공동으로 할 수도 있으며 民間이 독자적으로 할 수도 있으나 처음 단계에서는 政府가 어느 정도 投資해야 한다. 이러한 投資方法이 있다면 그 관리운영도 投資와 관련되어 政府가 관리하다가 民間이 관리하게 되고, 또 政府와 民間이 共同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發表報告書에서 제시된 것은 초기단계에서 政府의 投資가 先行되어야겠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提示를 한 다음 政府와 民間의 役割分擔에 대해서는 세밀히 언급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全體的인 것은 가능하였지만 各地方마다 서로 다른 이들 各地域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어떤 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農協共販場이 大都市에 없어야 하느냐 또는 있어야 하느냐 하는 妥當性 한 가지에 대해서만 報告書를 작성하여 여기에서 發表하게 되었다면 지금 질문하신 그 問題에 대해 제가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러나 이 많은 것들을 한꺼번에 연구하였기 때문에 아주 애매하게 쓸 수밖에 없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으로 都賣市場에 대하여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 投資를 할 것인가 또는 안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읍니다만, 大都市로부터 시작하여 대도시 거래물량중 적어도 50% 以上을 처리할 수 있는 都賣市場이 먼저 開設된다면 中小都市는 천천히 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提示하였다. 그러면 왜 都賣市場부터 먼저 建設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느냐 하는 것인데 Software나 Hardware는 동시에 들어가야지 先後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Hardware가 들어가면 Software도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Software가 개발되면 거기에는 Hardware가 꼭 같이 있어야 된다. 후진국 등에서 經濟開發을 한다든가 다른 무엇을 추진할 때는 어떤 면에서는 Hardware를 먼저 개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Hardware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고 學者나 專門家도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항상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상 동시다의 기분으로 연구를 하였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일일히 답변하기는 힘들겠지만 몇가지 예를 들겠다. 水産物은 별개로 따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별개로 따로 계산하였다. 그런데 水産物의 경우 消費推定에 있어서도 부산의 1人當 消費量과 서울의 1人當 消費量이 다르다. 부산사람들은 서울사람들에 비해서 약 30%를 더 消費한다. 그런데 강원도 사람들은 서울사람들에 비해서 약 20% 적게 먹는다. 이러한 것들이 감안되어서 需要가 계산되었으며, 지역별로 消費量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것을 假定하였기 때문에 消費推定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水産物도 모두 별개로 따로따로 분석하였다.

消費量을 보통 생각하듯이 먹는 量이라 한다면, 水産物 流通量은 消費되는 量과 차이가 상당히 많다. 왜냐하면 수산물은 껍질이 대부분 流通이 다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들이 먹는 부분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消費量과 流通量 사이의 gap을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하였다. 그러나 本 發表報告書에서는 그것들을 따로 따로 별개로 계산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그 다음에 市場에서의 發言權 즉 bargaining power를 어떻게 넓힐 수 있는가에 대해 언급하겠다. bargaining power라는 것을 예를 들자면 都賣會社와 사는 사람 상대방간에 競爭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을 말한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가락동 都賣市場에서 單協으로부터 물건을 가져왔을 경우 그것을 어디에 팔 것인가를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式의 이야기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流通段階로서 어떠한 것이 있는가에 대한 質問에 대해

그러한 예를 하나 들겠다. 지금은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해 어떻다고 말할 수 없으나 약 5年前의 서울 노량진 水産物都賣市場에는 代理荷主라는 것이 있었다. 지나간 이야기를 例로 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것을 例로 듭니다만 代理荷主라는 機能은 누가 흡수할 수 있는가 하면 都賣市場에서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代理荷主가 나왔다. 한편 荷役業務는 都賣市場에서 할 수 있으나 都賣市場에서 하지 못하니까 荷役業務가 생겼다. 그런데 都賣市場에서 이를 할 수 없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불필요한 流通段階가 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또 다른 質問으로 年次別計劃이라든지 財政計劃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두 세워 놓고 있으나, 먼저 말씀드렸듯이 民間이 할 것인가 아니면 政府가 할 것인가의 問題는 구별하지 못하였다.

強制上場制 문제에 관한 質問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政策協議會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겠다.

앞으로 硏究를 하거나 새로운 計劃을 세워 政府에 뒷받침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高見들을 모두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方案을 모색하고자 한다.

司會: 玄公南박사께서 특별히 답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玄公南(農經硏 農業流通室長): 副院長께서 다 解明해 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다. "都賣市場도 육성해야 되고 또한 直去來 集配센터에 대해 直去來도 높여야 한다는 것은 論理의 모순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물론 直去來라는 것이 지금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면 問題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거의 없다시피하다. 따라서 都賣市場經路의 비중으로 80%를 택했다면 나머지 20%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러한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制度的인 經路를 통해서 去來하는 것이 競爭的이고 또한 效率的이 아닐까 하는 의미에서, 代案的인 流通經路도 개발하자는 의미로 直去來를 말씀드린

것이며 그것 자체가 논리의 모순이라고 보지 않는다.

司會: 長時間에 걸쳐 저희 案에 대해서 좋은 助言을 해 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 基本的인 方向에 대해서는 대체로 큰 異見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이것을 補完하는 面에서 여러가지 意見이 계셨다고 생각한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은 좋은 資料로 참고하여 저희가 금후 農水産部의 流通政策에 반영되어야 할 것을 계속 진언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한 가지 이번에 어느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農業生産에 있어서도 2천년동안 똑같이 해오다가 지난 15년 사이에 갑자기 商業化營農으로 변하니까 農民들이 마치 거기에 적응하지 못해 과잉·과소생산을 반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流通問題도 지난 약 15年동안 갑자기 많은 인구가 農村에서 빠져 나오니까 그에 따른 施設이나 適應, 政策 또는 거기에 수반해야 되는 여러가지 여건이 동시에 따라가지 못한 데에서 오는 社會的인 마찰이나 어려움이 불가피하게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 오늘 助言해 주신 것들을 좋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보다 나은 流通政策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機會가 있으면 무슨 問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을 모시고 未盡한 말씀을 듣고자 한다.

附錄 1

開　會　辭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金　榮　鎭

農水産物流通과 關聯된 政府·學界 및 關聯團體에서 參席해 주신 貴賓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農水産物流通改善과 都賣市場建設長期計劃 樹立을 위한 政策協議會를 가지게 됨을 큰 榮光으로 생각한다.

저희 韓國農村經濟研究院에서는 1978年에 開院한 以來 農水産物流通의 여러 分野에 대한 廣範圍한 調査研究事業을 遂行해 왔다. 또한 그 結果는 수시로 政策當局에 建議하여 政府의 流通改善 努力을 뒷받침해 왔다. 특히 當 研究院에서는 政府의 特別한 財政支援에 의하여 "全國圈 農水産物流通改善 基本計劃研究"(NMMPS)를 1985年初에 完了한 바 있다.

따라서 오늘의 이 자리는 지금까지의 當研究院의 研究結果를 토대로 하여 作成한 農水産物流通改善의 전반적인 문제와 分野別 施策方向, 그리고 특히 農水産物都賣市場建設에 대한 當研究院 나름대로의 構想을 提示하고 討議를 거침으로써 政府의 流通改善을 위한 長期計劃 樹立 努力을 뒷받침하는데 그 目的을 두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農水産物流通의 문제는 1970年代 後半에 들어서 本格的으로 臺頭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우리 經濟가 急速한 工業化의 過程을 거치면서 國民所得의 增加와 都市人口의 팽창을 수반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農水産業도 自給自足的인 형태에서 商品生産의 형태로 크게 變化되어 왔다. 그러나 生産者와 消費者를 連結시켜 주는 流通部門은 이러한 變化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주지 못하여 農家所得과 國民生活의 不安定을 야기시켰고, 이는 國民經濟의 持續的인 成長에 큰 隘路要因으로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政府에서는, 특히 1980年代에 들어서 農水産物流通의 여러

分野에 대하여 과감한 投資와 制度의 整備 등을 해왔음은 높게 評價할 만하다. 流通情報體系의 改善, 流通金融과 規格包裝事業의 擴大, 農水産物 價格安定을 위한 收買·備蓄과 生産者共同出荷組織育成事業의 擴大 등의 努力이 그 例이며, 특히 昨年에 開場된 서울 가락동 農水産物綜合都賣市場에 대한 政府의 投資는 매우 劃期的인 事實로 記錄될 것이다.

政府의 이러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오랜 時日에 걸쳐 뿌리내린 商去來慣習과 流通改善方向 등에 대한 各界 意見이 一致되지 못하고 있어 農水産物流通改善을 위한 政府의 施策推進에 큰 困難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農水産物流通 전반에 대한 政策方向은 물론, 農水産物流通改善을 위하여 가장 核心的인 課題라 할 수 있는 都賣市場의 整備方案에 대한 具體的인 事項까지도 광범위하게 그리고 허심탄회하게 參席者 여러분의 意見을 개진하여 주심으로써 農水産物流通改善의 또 다른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時間을 내어 參席하여 주신 여러분께 다시한번 感謝의 말씀드리며 이만 開會辭에 가름하고자 한다. 感謝합니다.

1986. 3. 20.

附錄 2

參席者 名單

座　　長	金 榮 鎭	(韓國農村經濟研究院長)
主題發表	玄 公 南	(農經研 農業流通室長)

討論參席者

政　　府	李 相 茂	(靑瓦臺 秘書官)
	鄭 在 龍	(經濟企劃院 國民生活課長)
	김 범 근	(經濟企劃院 農水産豫算擔當事務官)
	金 漢 坤	(農水産部 農政局長)
	金 是 文	(水産廳 漁政局長)
	李 炟 周	(서울시 農畜課長)
學　　界	沈 永 根	(서울대 農大 敎授)
	鄭 福 祚	(高麗大 農大 敎授)
	鄭 燦 吉	(建國大 畜産大 敎授)
	權 元 達	(忠北大 農大 敎授)
硏究機關	成 培 永	(農經研 副院長)
有關機關	金 昌 洙	(農協中央會 理事)
	李 昌 琳	(畜協中央會 〃)
	閔 庚 言	(水協中央會 流通部長)
	宋 鍾 益	(農漁村開發公社 流通本部長)
	朴 明 在	(서울시 農水産物都賣市場 管理公社 營業理事)
	權 載 斗	(全國 農水産物 指定都賣人協會長)

農水産物流通改善과 都賣市場建設長期計劃構想

1986年 5月 日 發行

發行處：韓國農村經濟研究院

登 錄：1979年 5月 25日 第 5 - 10號

印刷處：株式會社 文 苑 社

739 - 3911～ 4